
 숨은그림찾기 <84>


(첫) (1) (보) (세) (묘) 서틀록, 팽이, 희살, 송곳, 새, 바늘, 종이배, 접시, 칫솔

잡혀온 이유

절도죄와 강간죄로 잡혀온 두 죄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당신은 무슨 죄로 들어왔소?”

“나는 길에 새끼줄이 있기에 주웠다가 여기까지 왔소”

“아니, 새끼줄을 주운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새끼줄 끝에 소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런 데 당신은 무슨 죄로 들어왔소?”

“나는 방에 엎드렸다가 들어왔지요”

“방에 엎드려 있는 게 무슨 죄가 되나요?”

“내 배 밑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정답

물고기, 종이비행기, 담배파이프, 서틀록, 디리미, 열대어, 갈매기, 펜촉, 종이배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도연(광주시 서구 풍암동) 유나경(광주시 서구 유촌동)

아하! 오늘의 바로 그날

1980년 8월 2일 국내 첫 컬러TV 시판

흑백 TV를 보던 70년대, 구분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운동 선수들의 유니폼 색깔이다. 흰색과 검은색을 제외한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등 의 색깔은 짙거나 옅은 ‘회색’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컬러 TV는 지난 1980년 8월 2일 처음으로 국내 판매가 시작됐다. 지난 1974년 1월 아남산업이 일본 내셔널전기와 협작해 최초의 컬러TV를 생산했지만 ‘에너지 절약’, ‘소비생활 억제’, ‘계층 간 위화감 조장’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가 신군부에 의해 6년만에 허용된 것.

당시 전남일보 및 전남매일 등은 ‘컬러 TV 시판과 확장’, ‘컬러TV 가격 1문1답’의 제목을 달아 주요 기사로 처리했다.

첫 시판된 컬러TV 가격은 공장도 출고기준으로 14인치형 29만6천700원, 20인치형 38만5천500원이었다. 리모컨으로 조작되는 방식이 아닌 다이얼을 돌리는 로터리식. 소비자 가격은 여기에 대리점 유통 마진 10%를 인정한 14인치형 32만6천370원, 20인치형 42만4천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거리가 먼 도서 지역 등에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소비자가격에 수송비가 추가로 부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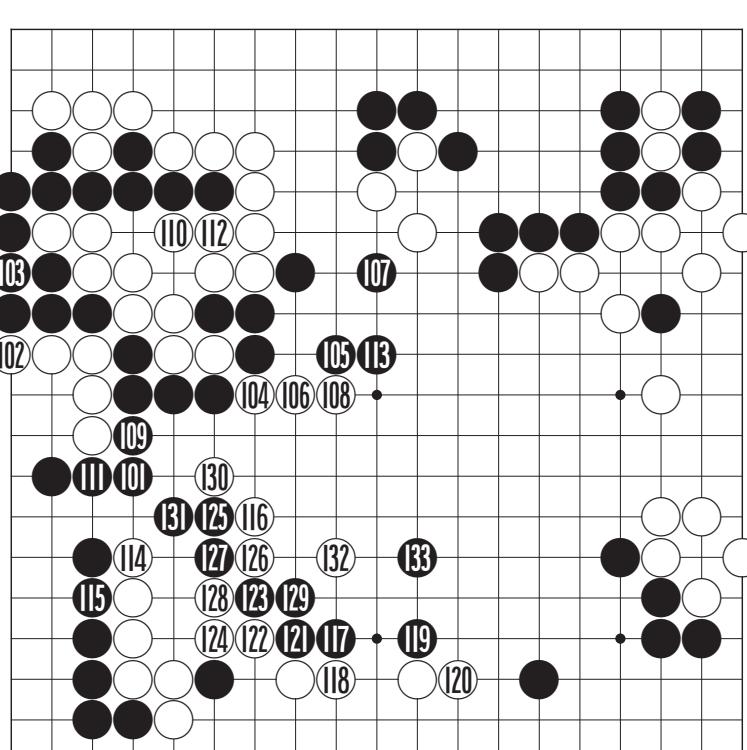
흑백 TV가 대부분인 당시 처음 시판되는 ‘천연색’ 컬러TV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가전업체가 예약 접수를 받는 장면이 소개되는가 하면 컬러 TV를 산 이웃집을 드나들며 구경하는 일도 많았다.

컬러TV 판매는 8월부터 이뤄졌지만 컬러 방송까지는 이뤄진 건 아니었다. 국내 컬러방송은 지난 1972년 9월 상공부가 컬러TV 생산계획을 발표한 후 8년동안 준비해 오다 1980년 6월 체신부가 컬러TV 방송의 표준방식을 미국식의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으로 결정함으로 본격화됐고 12월 1일부터 본방송이 시작됐다.

컬러TV는 지난 1940년 미국의 베이드가 그 원리를 개발하고, 1953년 미국의 RCA사가 컬러 브라운관을 개발한 후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1980년 8월 시판을 앞두고 예약을 받고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들.



제16회 광주일보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철통같은 보강 6보(101~133)

白 이창준 5단
(주송립)
黑 최한용 5단
(조선대)

좌변은 애초 흑이 크게 집을 낼 수 있었던 곳이다. 그런 곳에서 거꾸로 흑 대마가 잡혀 30여집을 아무 보상도 없이 백에게 헌납한 끝이 되었다. 한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보통 대마가 잡힌다거나 하면 그 대가로 세력이 생기든지 아니면 상대의 약한 둘이 생기든지 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흑 대마만 잡혔을 뿐 오히려 104에 끊기는 약점만 남아있어 세력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던져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게 당했지만 이 판은 단체전과 개인전이 걸린 위험 중대한 판이라 최

한용 5단은 기회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이창준 5단은 웃노래를 부르며 104로 끊어 갈길이 바쁜 최한용 5단의 밭목을 불잡고 나서 116으로 철통같이 중앙을 보강해 역전은 없다고 와치고 있다.

흑 117은 상용의 삭감수단. 일단 하변을 건드려 가며 백의 허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흑 133까지

일단 백을 차단하는데는 성공했는데 과연 역습의 기회가 올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월드 메르디앙, 영남일보 제약

경북 월드 메르디앙이 지난달 29일 한국기원 바둑 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07 한국바둑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영남일보를 3-1로 꺾었다.

6연승을 달리던 영남일보는 이 페페로 연승행진을 마감했고, 월드 메르디앙은 4승3패를 기록했다. 유향혁 9단은 2승1패로 리드한 상황에서 영남일보 허영호를 반집차로 꺾고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

이 대국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마친 바둑리그는 1일 KIXX-제일화재의 경기로 후기 리그를 시작한다. 전반기 리그에서 영남일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광주 KIXX와 전남 대방노블랜드는 각각 5위와 8위를 기록했다.

75.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9일(이하 한국시간) 일본과의 2007 아시안컵 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일본전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베어벡
- ② 알렉스 퍼거슨
- ③ 거스 히딩크
- ④ 세뇰 구네스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음 6월 19일 丁酉)

子 36년생 남의 말을 꼽아 살펴보라. 48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하니 오늘은 잡아보라. 60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세수가 있을 수 있다. 84년생 혼자 유품을 꺼내는 행운이 찾아오는 형상이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6, 44

丑 37년생 수족을 살펴보고 관리에 힘쓰라. 49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경사가 있을 수 있다. 61년생 모든 일이 풀리지만 무리가 아쉽다. 73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하라. 85년생 혼자 있으나 주변인들에게 배풀리라. 행운의 숫자: 02, 28

寅 38년생 도발에 발등을 찍힐 수 있는 근간을 주의하라. 50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62년생 흥은 가고 길가에 접두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행하라. 행운의 숫자: 01, 39

卯 39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행상이다. 51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쁜 생활을 해야 한다. 63년생 풍류에 훈련하여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75년생 남여간에 이상에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라. 행운의 숫자: 01, 26

辰 40년생 드보라. 삶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순례가 걱정된다. 52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혁명적인 진짜가 보인다. 64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76년생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18, 35

巳 41년생 배우자와 불편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3년생 배들이 일어날 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65년생 시기 일부로 혼자로 살고자 한다. 77년생 혼자 유품으로 인해 불편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04, 32

未 42년생 수족을 새롭게 수놓거나 고맙게 생각한다. 54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66년생 결단과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를 도모한다. 78년생 혼자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19, 41

申 43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로다. 55년생 고목 회중의 기쁨은 신뢰만이 얻는다. 67년생 괴롭히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하니 희망으로 돌아온다. 79년생 괴육은 자기의 내실로 행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24, 31

酉 44년생 좋은 메니가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풋서비스로 보내라. 56년생 생활이 복잡해지니 혼자로는 모든 일이 순행한다. 68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혼자로 살고자 한다. 80년생 협조자가 생기나 신사는 피하고先길후으로 간다. 행운의 숫자: 23, 43

戌 45년생 병약한 김복이니 괴롭히지 않도록. 57년생 사기에 영기 수니 신중하게 움직여라. 69년생 준비를 필요로 없으니 준비를 잘하라. 81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체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10, 43

亥 46년생 흥이 복으로 변한다. 58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치니 혼자서 조심하다. 70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끝으로 남아간다. 82년생 복이 흥으로 되니 속하고 하기 이전에 자선을 배풀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2, 42

亥 47년생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난다. 59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내용에 활동을 집중하라. 71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오니 옛 정을 유지하다. 83년생 생소한 길복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니 과감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13, 16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60>

Could I have a blanket?
답요 좀 빌려주시겠어요?

A : Excuse me. Could I have a blanket?
B : It's in the overhead compartment.
A : I can't find it.
B : I'm very sorry. Could you wait a moment? I'll bring one in a few minutes.
A : Ok, thank you.

A : 여보세요, 답요 좀 주실래요?
B : 위쪽 침칸에 있습니다.
A : 안 보이는데요.

B :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A : 그러세요, 고마워요.

* Could I~? = May I have~?
* compartment : 칸막이 칸
* 읽을 거리가 있습니까? = May I have something to read?
* 이어폰 좀 부탁드립니다.

= Can I have some earphone, please

오하요우 니혼고 <960>

何(なに)かおもしろいツアないかな。
뭔가 재미있는 투어 없나

A : 今回(こんかい)の夏休(なつやすみ)はどうしよう. 何かおもしろいツアないかな。

B : 海水浴(かいすいよく)ツアとか、レジャ施設(しせつ)ツアとかもあるよ。

A : うん. でも、それは普通(ふつう)じゅん。肝試(きもだめ)しツアみたいなのはないかな。

B : え、なにそれ、いやだよ,そんなの。

A : 이번 여름에는 어찌? 뭔가 재미있는 투어 없나.

B : 해수욕 투어나, 레저시설 투어 같은 것도 있어.

A : 음, 그런데, 그건 평범하잖아. 답력 시험 투어 같은 건 없나.

B : 뭐? 그게 뭐야, 그런 건 싫어.

肝試(きもだめ)し: 답력 시험

ツア: 투어

夏休(なつやすみ): 여름방학, 여름휴가

니하오 쟁구워 <150>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

找不到</